

호남고속철 노선선정 주민 설명회

# “전남교통 중심지 나주 통과해야” “무안 경유, 공항-철도 연결해야”

## 4개 노선 치열한 공방 “둘 다 연결” 절충안도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의 노선 선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노선 최종 결정을 한 달 가량 남겨 놓은 2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노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놓고 이해당사자인 무안·나주 주민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고속철 통과가 지역 사회의 이익과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 노선선정 타당성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노선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노선을 확정하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구간 노선선정 타당성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노선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노선을 확정하게 된다. <전남도 제공>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 한 의원은 “서부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서남권이 같은 사안인 것이라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일상 무안공항 활성화대책위원장은 “무안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므로 KTX가 이곳을 경유해 공항 이용객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KTX를 무안공항으로 연결시키면 광주·전남 및 충청권 이남의 교통 수요 확보를 통한 공항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영덕 도의원(무안 2·민주)은 “시속 300km이상 달리는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2014년 광주공항 이전으로 늘어난 무안공항 수요와

제주해저터널까지 감안해 KTX는 나주역을 경유하지 않고 무안공항~목포로 연결한 뒤 향후 제주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안도 나왔다. 이기병(나주 1·민주)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4가지 대안은 소요 시간으로 보면 모두 10분 안팎의 차이가 난다”면서 “이들 방안 외에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모두 경유하되 나주역까지는 기존 선을 활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고속신설 노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지훈 전남문화관광해설사는 “나주와 무안공항을 모두 거쳐 지역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속도를 늦추더라도 양 지역 의견을 모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고속철 노선 선정이 경제성을 따지거나 해당 지역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간 이해득실을 떠나 전남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달말 최종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區 경계조정 반대한 단 1명의 의원은?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광주일보 1일자 1·3면)과 관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식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재균 의원)은 2일 오후 5시3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104호 회의실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영택·김영진·강기정·김재균·김동철·이용섭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구간 경계조정과 시장 인사 등에 대해 1시간30분 이상 열린 논의를 벌였다. 강 시장은 당초 예약한 광주행 비행기 시간을 미루고 다른 만

찬 약속이 있던 대부분 의원들도 약속에 늦는 정도로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끝난 후 김재균 시장위원장은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한 명의 의원이 거부 입장을 보여 앞으로 진지하게 논

의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간 경계조정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정치인 개인들의 이해가 맞물려 어느 누구도 쉽게 총대를 메고 논의를 진행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통계청 발표 ‘한국의 사회동향 2010’

## 월소득 300만~399만원이면 만족 아동성폭력 10년만에 1.7배로 늘어

지난해 전체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10쌍 가운데 1쌍이 외국인 배우자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09년에는 11.1세로 늘었다.

또 월소득이 300만~399만원을 넘어서면 소득에 만족한다는 비중이 뚜렷이 증가해 이 구간이 우리 사회의 소득 만족도를 결정짓는 경계점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0’ 보고서를 발표했다.

◇계층상승 가능성에 48%가 부정적=본인과 자식의 사회·경제 지위가 상승하는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높다’는 반응이 각각 2006년 27.5%, 39.9%에서 2009년 35.7%, 48.4%로 증가했지만 ‘낮다’도 46.7%, 29.0%에서 48.1%, 30.8%로 조금 늘었다. 하층일수록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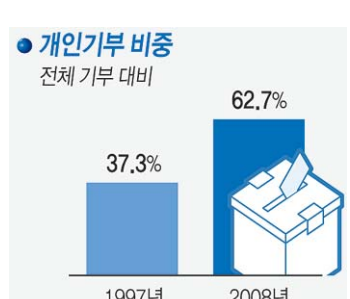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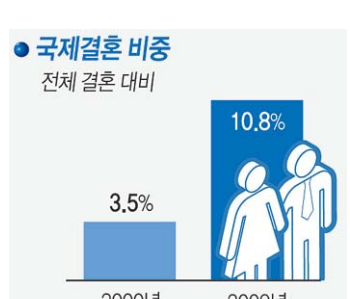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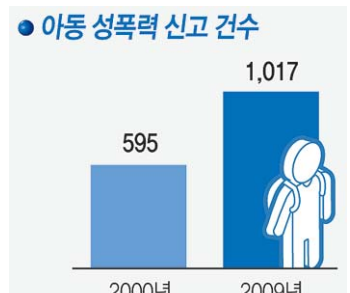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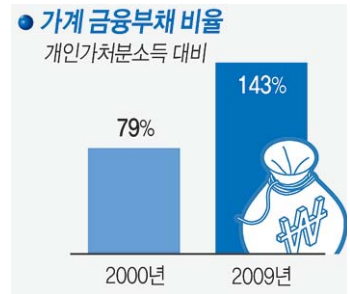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9년 5685건으로 2.7배로 늘어난 가운데 83%가 부모에 의해 이뤄졌다. 아동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0년 595건에서 2009년 1017건으로 1.7배로 불어났다.

탈북자의 국내수용에 대해서는 91% 찬성한 가운데 무조건적인 수용은 2007년 52.0%에서 올해 43.6%로 감소한 반면 선택적 수용은 37.2%에서 47.9%로 늘었다.

개인 기부가 확산하면서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37.3%(9500억원)에서 2008년 62.7%(5조6700억원)로 늘면서 법인 기부금을 앞질렀다.

올해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24.7%와 68.4%로 조금 줄어 들었고 증가 추세를 보이던 비만율은 2007년 31.7%에서 2008년 31.0%로 주춤한 상황이다. 운동실천율은 2007년 9.9%에서 2008년 14.5%로 늘었다.

◇소득 만족 경계점은 월 300만~399만원=월소득 300만~399만원을 넘어서면 대체로 소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수준별 소득만족도는 300만~399만원이 16.0%로 다른 구



보다는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은 2009년 143%로 2000년에 비해 1.8배 상승했다.

여가활동에서는 1999년 이후 TV 시청이나 휴식 중심의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스포츠·레저, 게임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TV 시청 시간은 1999년 2시 5분에서 2009년 1시간 51분으로 줄었다. 걷기·산책은 6분에서 13분, 게임은 6분에서 14분으로 늘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 수준이며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 가격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7%의 누적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109%에 달했다. 국민 6명 중 1명은 매년 거주지를 이동하며 거주지 이동의 주된 요인은 평소 확장과 내 집 마련이었다.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5년만에 3배=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최근 5년만에 3배로 늘었지만 여성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영아(0~2세)가 2004년 11.2%에서 2009년 33.5%로 늘었고 유아(3~5세)도 2004년 38.9%에서 2009년 49.9%로 증가했다.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도 2004년 27.2%에서 2009년 39.4%로 경종 뛰었다.

그러나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부담’ 비율은 1998년 29.3%에서 2009년에는 47.6%로 늘었다.

학생들의 학교수업 만족도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22.1%에서 25.2%로 증가했다. 외국인 단순 인력은 2001년 11만명에서 지난해 51만1000명으로 4.6배 증가했으며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2004년 15.5%에서 지난해 27.5%로 높아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10쌍중 1쌍은 국제 결혼

### 개인기부 늘고 법인 줄어

간에 비해 만족도가 뚜렷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월소득은 426만3000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298만9000원보다 42.6% 많았다. 2003~2009년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증가율은 32.5%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8.8%에 그쳤다.

중·고령자 가구의 40%는 가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족시 자녀, 친지에게 의존하기



#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꿈에 하나 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2010. 12.1(수) ~ 2011. 1.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nou.ac.kr) 참조

시인을 꿈꾸는 제2 피아니스트 이노경 (국악문화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의사 최현민 (미디어영상학과)